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찬31/새67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상원 집사 2부/이석희 장로 3부/이완희 집사 4부/지찬영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선한 능력으로(김재훈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특별 연주(2,3부) Special Music..... Hope Orchestra 소망 오케스트라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John) 6:22-59 All 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10:1-9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궁예(10) 오병이어 기적의 후유증

-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34) "I AM" 양의 문이라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님 한분 만으로, 주의 은혜라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사랑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하모니 -대광고 동문 여러분을 환영하며

A Beautiful Harmony Created by Love -Welcoming the Alumni of Daekwang High School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오늘은 베델 소망 오케스트라가 지난 1년 가까이 걸어온 발걸음을 돌아보며 특별연주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날입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자녀들이 악기를 붙들고 한 음 한 음 익혀 왔습니다. 그 뒤에는 자녀들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 준 부모님들, 사랑으로 지도한 선생님들, 그리고 기꺼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화음을 만들어 준 비장애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단순한 연주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만들어 낸 기적의 하모니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계속 후원하기 위한 바자회도 열립니다. 한국에서 신선한 유기농 식료품을 기증해 주신 분,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하시는 소망부 선생님들, 그리고 이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각 처에서 찾아오신 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마음에 담아 둘 때보다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마침 오늘은 한국의 기독교 명문 대광고등학교 동문 여러분도 미국 여행 중 주일을 맞아 베델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인격과 섬김의 정신을 길러 온 대광의 전통이 오늘 베델의 사랑과 만나니 더욱 뜻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 손인식 목사님을 비롯하여 대광 출신 동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베델교회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6년 전 기독교 사립학교인 베델 클래식얼 아카데미(BCA)를 설립했습니다. 대광이 오랜 세월 걸어온 믿음의 교육 여정을 우리도 이제 막 배우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동문 여러분을 베델교회와 BCA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BCA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 대광고등학교 교정을 방문하는 날도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때는 꼭 반갑게 맞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고전 12:12)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는 쓸모없는 지체도, 없어도 되는 지체도 없습니다. 각자의 소리는 달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이 모여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Today is a day to look back on the journey of the Bethel Somang Orchestra over the past year and offer a special performance to God. Ou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held onto their instruments, learning note by note. Behind them stand parents who believed in their potential and waited patiently, teachers who guided them with love, and non-disabled peers who willingly stood shoulder to shoulder to build this harmony together. The music we hear today is not just a performance; it is a miraculous harmony created by love that never gives up.

A bazaar is also being held to continue supporting this precious ministry.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ose who donated fresh organic products from Korea, the Somang Department teachers who willingly rolled up their sleeves to serve, and the guests who came from all around to take part in this meaningful event. Love is far more beautiful when it moves as hands and feet than when it is merely kept in our hearts.

Coincidentally, alumni from Korea's prestigious Christian school, Daekwang High School, visited Bethel Church today while traveling in the U.S. We are truly delighted and grateful to have you. Daekwang's tradition of cultivating character and spirit of service grounded in the Christian faith meets Bethel's love today, making this occasion all the more meaningful. I understand that there are quite a few alumni from Daekwang at our church, including the late Pastor Peter(In-Sik) Son.

Deeply realiz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at raises up the next generation through a Christian worldview, Bethel Church established Bethel Classical Academy(BCA), a private Christian school, six years ago. We are now taking our first steps to learn from the long journey of faith-based education that Daekwang has walked over the years. We warmly welcome the visiting alumni today in the name of Bethel Church and BCA.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our BCA students might embark on a field trip to Korea and visit the campus of Daekwang High School. Please be sure to welcome us warmly when that day comes!

The Apostle Paul tells us, "Just as a body, though one, has many parts..." (1 Corinthians 12:12). In the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there are no useless parts, nor any that can be dispensed with. Though our individual voices differ, the conductor who unites us as one is Jesus Christ. It is my hope that today, our small acts of love and service will come together to form the most beautiful worship and praise offered up to God.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오병이어 기적의 후유증

(요한복음 6:22-59)

1. 배부른데 왜 또 배고플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 6:26-27)
2. 내 영혼의 황금 새장은 무엇입니까? (요 6:35) 설교에 등장한 앵무새는 황금 새장과 좋은 그늘, 목욕시설을 가지고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막상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나니 만족감은 오래 가지 못하고, 영혼의 허기짐은 더 심했던 때는 없습니까?
3.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 봉사, 헌신을 하나님의 사랑이나 축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요 6:28-29, 참고/엡 2:8)
4.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자신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고 깨달았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 사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위로와 확신을 줍니까? (요 6:37, 44)
5.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원합니까? 설교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며 이번 한주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요 6:51, 54)

적용하기



선교 후기
베트남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배우다



매일 아침 미션스쿨 고등학교에 등교하며 마주하던 설립자의 동상을 바라볼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과연 이 파란 눈의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먼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평생을 이곳에 헌신하셨을까.'

그리고 2년 전 미국에 오면서 베델 성도님들을 통해 해외 선교 활동을 접하게 되었고, 나와는 다소 생경하게 느껴졌던 선교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적지 않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 온 나에게도 그 생경함은 해외 선교라는 중압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기도하며 선교의 의미를 생각하고 준비해 가면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신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준비한 선교팀들과 정신없이 계획한 사역을 수행하며 처음에 가졌던 걱정과 기대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육원에서 무릎까지 차오르는 홍수 속에서도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는 아이들의 모습과, 짐을 함께 나르고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게임과 율동을 같이 하면서 그 맑은 얼굴 속에 드리워진 부족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 품에 안기고 손을 잡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느 순간 나도 그들의 일부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었

습니다. 또한 멀리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일하러 왔다가 주일을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소중한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선교팀의 도움으로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난 8일 동안 나는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지, 혹시 연민의 눈으로만 그들을 바라보는 교만의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 사랑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아쉬움 등을 뒤로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난 8일의 시간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계기가 되며,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윤기로 집사

사역 소개
선교관

섬김의 자리에서 배운 사랑

베델교회 선교관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행사로 오시는 손님들이 잠시 쉬어 가시는 쉼터입니다. 2026년 선교관을 맡으며, 잘 알지 못했던 이 사역을 통해 먼저 섬기신 분들이 얼마나 조용히, 정성껏 헌신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가는 분들의 일정에 맞춰 선교관을 관리하는 일이 막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섬기셨던 황사균 집사님 부부께서 인수인계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제가 사정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관리해 주십니다. 덕분에 혼자 아닌 함께 동역하는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관을 관리하며 받은 은혜도 참 큼니다. 처음에는 선교관 사역이 Airbnb 관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머무셨던 분들은 수

건 한 장까지 깨끗이 빨아 놓으시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라이너까지 같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머물렀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덕분에 제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관리에 불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모습을 통해 가장 크게 다가온 단어는 '배려'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곳을 사용하지만, 다음에 머물 누군가를 생각하며 깨끗이 정리하는 마음. 그 작은 배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심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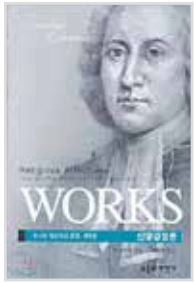
이번 선교관 사역을 맡으며 먼저 섬기신 분들의 사랑과 이곳에 머무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 이제 겨우 고린도전서 13장을 배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선교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사랑을 기대해 봅니다.

박정화 권사



추천 도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는 1741년 선포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입니다. 목회하시던 노스햄튼(Northampton, MA)이 아닌 앤필드(Enfield, CT)에서 특별 강사로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은 원고를 차근차근 읽어 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던 회중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지르고 설교 중단을 요청했지만, 목사님은 "조용히 하십시오.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시고 계속 설교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후의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가 아니었는데, 이 설교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싹탄이 되었습니다.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면서 신기한 영적 경험들이 나타났는데, 교인들 사이에서 과격한 감정적 표출이 참된 성령의 역사인가에 대한 논쟁이 커졌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로서 책임감을 가진 에드워즈 목사는 참된 신앙의 본질을 분별하고자 1746년에 쓴 책이 <신앙감정론 Religious Affections>입니다.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거룩한 감정이 따르지만, 모든 종교적 감정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비롯된 거룩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감정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겸손히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년 후 <성찬 참여 자격에 관한 고찰 An Humble

Inquiry into the Rules of the Gospel Concerning Qualifications for Communion>이라는 책을 통해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경계했는데, 결국 이 책 때문에 1750년 목사님은 노스햄튼 교회에서 해임이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신앙감정론> 이후 읽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신앙감정론>은 감정에 치우친 신앙에도, 감정이 메마른 신앙에도 좋은 처방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 흥분인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참된 신앙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변화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품고 읽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책으로, 베밀의 모든 성도님께 권합니다.

김한요 목사

사역 후기
전도폭발 훈련

함께 걷는 사람들

제65차 전도폭발 훈련이 시작되고 두 번째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교회 부엌에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야채를 썰고, 나물을 데쳐 무치며, 골뱅이무침과 소면을 준비했습니다. 150인분의 갈비를 정성껏 굽고, 식탁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오후 7시가 가까워지자 초청받은 기도후원자들이 하나 둘 도착했습니다. 각자가 후원하는 훈련생들은 반가운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고, 유년부실은 따뜻한 교제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전도폭발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평신도를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로 세우고, 지역교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전도자는 두 명의 기도후원자를 세워 훈련 기간 내내 중보기도로 동역하게 합니다. 기도후원자의 밤은 함께 모여 전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와 은혜를 나누며 동역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번갈아 훈련받기도 하고, 서로 기도후원자로 섬기기도 합니다. 때

주 복음제시 결과와 성령님의 역사를 들으며 훈련생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하게 된 기도후원자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선으로 나가는 야전병이라면, 기도후원자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든든한 동지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처음으로 영어 전도폭발이 시작되어 더욱 특별했습니다. 어린 세대가 자라는 가운데 영어권 대상자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후원자의 밤이 무르익었을 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만날 대상자들과 새롭게 훈련을 시작하는 훈련생들, 전도 현장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아니하겠느냐"(눅15:4). 이번 학기 17개 조는 매주 복음을 전하며 총 170명 이상의 대상자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연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지애 집사



교회학교

영아부 교사 간증

작은 손으로 드리는 예배

작년 2월 영아부가 생겼을 때 '이런 아기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말도 못 하고, 예배 중에 울기도 하고, 엄마 품에서 잠이 들기도 하는 0-18개월의 아기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기들과 부모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기들도 이미 귀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아부 예배는 조용하고 완벽한 예배와는 조금 다릅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예배드리는 아이도 있고, 때로는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오시기도 합니다. 아기가 울면 부모님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선생님들은 아기를 안아주고 달래며 함께 예배합니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기를 품에 안고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젊은 부모님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은데도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를 품에 안고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예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았던 그 시간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아부의 부모님들을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돌보러 왔지만 제가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손과 환한 미소, 그리

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심을 봅니다. 작은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부모님과 아기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작은 믿음의 시작이 아이들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강정희 권사



교회학교

영어 고등부 교사 간증

For Every Heart



Holos Ministry has two very different Sunday services. The 9 a.m. service meets in Vision Chapel, with numerous teachers and lots of students. By contrast, the 11 a.m. service meets

in a classroom, with only two teachers and far fewer students. But more than that, the students' personalities are different. At 9 a.m., many students have lots of friends at church and are always happily chatting. At 11 a.m., students are quieter and more reserved, and several have shared that they don't like big crowds, so they prefer this service.

This difference in personality has challenged me as their teacher. When I was a student here (in the 1900s), I loved coming to church to mingle with lots of kids. But serving at 11 a.m. reminds me that church should be a space for everyone.

leaders and sinners, a rich young ruler and the poorest beggar. Outward appearances or social standing make no difference when it comes to salvation. All that the world sees on the outside fades away in God's presence.

I wonder if our church is truly attractive to everyone. Perhaps when newcomers arrive in our parking lot, they might feel intimidated if they don't have a nice car. Perhaps couples in difficult marriages have trouble visiting a church where every family looks perfect on the outside. Perhaps some students need a smaller service to feel comfortable. The Lord seeks every heart. May our church be a place where all the lost can be welcomed, and where they can find Jesus.

Tim Sohn 집사

In the Bible, who followed Jesus? Religious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수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수채플: 공병주 목사
예수채플: 최요셉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수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경아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소망 오케스트라 후원 바자회

2026년 가을 학기에도 소망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망 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음악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학생들은 소망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통해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며 배려와 협력, 기쁨과 감사를 배우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찬양, 기도로 연습을 시작하며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한 음 한 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이들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 후원자분들의 지원을 통해 후원 바자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바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일시: 10월 11일(주일) 1부 예배 후 부터 오후 1시까지
- ▶ 장소: 베델교회 코트야드
- ▶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최 신 권사 (949)331-5169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11월) | 10/18: ①부-이승호 ②부-이선갑 ③부-이우용 ④부-김문정
10/25: ①부-정현근 ②부-이양수 ③부-윤대호 ④부-김승진
11/1: ①부-정광목 ②부-장천경 ③부-이준혁 ④부-김유리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0,11월) | 10/17: 이영복 10/24: 이희정 10/31: 이원배 11/7: 임병규
강단꽃(10,11월) | 10/11: 윤성자, 윤주원, 최경식 10/18: 이수민 10/25: 이인철 11/1: 이미옥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권석원(치과), 간호사-Tina Nguyen

다음주 | 의사-차계향(한 의사), 간호사-윤경자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 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황모세 목사와 함께 떠나는 수요말씀여행 'Kingdom Perspective: Covenant'** 10월 14일(수), 황모세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수요말씀여행이 세 번째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는 '극적인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언약을 함께 공부합니다. 성경속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의노트는 현장에서 배포되며, 유튜브 강의 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10월 14일(수) 저녁 7시, 본당
자녀들봄/문의: K-5학년 대상,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세례/입교 신청**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22일 주일 예배 3부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오리엔테이션, 세례 교육 및 문답 리허설을 참석과 수료해야 하며 CTM, BYM, 예살, JM, 소망부는 각 부서별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청 기간/방법: 9월 20일(주일)-10월 11일(주일), 홈페이지 및 QR 코드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전체 오리엔테이션: 10월 11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
대상: KM 성인, 예살, 중고등부(BYM과 CIM), 신청 학생의 학부모
교육 일시: 10월 18일(주일), 10월 25일(주일), 11월 1일(주일) 오후 12시 45분, 임마누엘 채플
문답 일시: 11월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전체 리허설: 11월 21일(토) 헬시바 예배 참석 후 오전 8시, 본당
문의: 박재문 장로 (949)241-4987

◆ **Back to Bethel: A Homecoming**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베델의 온가 족을 '홈커밍 예배'로 초대합니다. 한때 베델의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우리의 자녀들과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주세요. 베델의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로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① QR코드로(또는 부스에 오셔서) 초대하고자 하는 자녀/친구의 정보를 등록하시면 백투베델 팀에서 행사 초대장을 발송해 드립니다. ② 다양한 음식과 액티비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재정후원, 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사 인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1월 21일(토)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코트야드에서 식사, 본당에서 예배)
문의: 김인규 장로 (949)331-8419

◆ **소망 오케스트라 후원 바자회** 오늘 10월 11일 주일 코트야드에서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1시까지 소망오케스트라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최 신 권사 (949)331-5169

◆ **B2N 2027 연합기도회 2차 등록**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깃든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Blessings to Nations(B2N) 2027' 연합기도회의 2차 등록을 받습니다.

일시: 2027년 4월 22일(목)-26일(월)

장소: 튀르키예 안탈리아,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등록 방법: 코트야드에서나 QR code로 online sign up을 하실수 있습니다.

*여권 사본과 B2N 등록비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관련 부스도 운영 중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부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황세현 장로 (949)648-1907, 이충경 목사 (949)537-6968



◆ **멕시코 일일 선교 팀원 모집** 다가오는 11월 7일(토), 국경을 넘어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을 섬기는 멕시코 일일 선교를 진행합니다. 이번 선교는 의료 사역, 미용 사역, 어린이 사역, 안경 사역, 노방 전도/찬양 사역, 건축 사역 등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의료와 미용 사역에 섬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모양: 10월 22일(목), 10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 유년부실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화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축하해주세요

- 박계균 집사, 김홍예 권사의 차녀 박채영 양과 임지훈 군의 결혼식이 10월 9일(금)에 있었습니다.
- 권승재 형제와 한상희 양의 결혼식이 10월 10일(토)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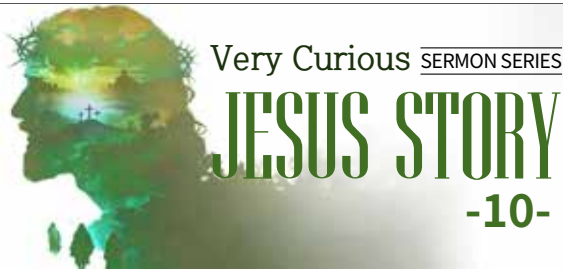
◆ 위로해주세요

- 故 최규엽 집사님(최지훈 집사의 부친, 정지영 집사의 시부)께서 10월 4일(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최종낙 장로님(최원희 권사의 남편)께서 10월 4일(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아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가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헬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The Aftermath of the Miracle of the Five Loaves and Two Fish (John 6:22–59)

1. Why are we hungry again when we're already full? The people who experienced the miracle of the five loaves and two fish came back looking for Jesus again the next day. What did Jesus say to them? (John 6:26–27)

2. What is the "golden cage" in my soul? (John 6:35) The parrot in the sermon had a gold cage, a shay place to rest, and a place to bathe, yet it was still starving. Have you ever experienced a time when you finally got what you wanted, only to find that satisfaction didn't last, and you soul felt even hungrier than before?

3. The people asked Jesus,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In your own faith journey, have you ever caught yourself treating prayer, service, or dedication as conditions to earn God's love or blessings? (John 6:28–29; Ref: Eph 2:8)

4. Jesus said that no one can come to Him unless the Father draws them. Looking back on your faith journey, was there a moment when you realized that while you thought you were seeking God, He had actually come looking for you first? How does that truth comfort and reassurance you today? (John 6:37, 44)

5. Do I want the bread that Jesus gives, or do I want Jesus Himself? As you reflect deeply on this message, what specific commitment will you make this week to find true satisfaction in Jesus, the Bread of Life? (John 6:51, 54)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